

伝統
ZOGAN
工
芸

魚山館

Mitsuyuki

光助

히 고(肥後)상 감



문무에 뛰어난 히고번주 호소카와 타다토시(細川忠利)와 그의 부친 타다오키(忠興-利休七哲의 한 사람)는 금속공예에 대단한 관심과 열정을 기울였다.

히고상감은 타다토시를 섬기던 대장장이 하야시마타시치(林又七)와 타다오키를 모시던 히라타히코조(平田彦三), 니시가키칸시로(西垣勘四郎), 시미즈진베이(志水仁兵衛) 등의 뛰어난 금속공예가들의 연구 끝에 완성된 것이다.

타다오키는 직접 칼의 날뿔과 가공장식등을 제작해 명품들을 남기기도 했다.

에도(江戸)시대에는 번주의 참근교대(参勤交代) 때에도 상감사들이 수반되는 등 폭넓게 금속공예가 연구되었다. 특히 날뿔에 상감을 새겨넣는 등 칼장식구 분야에서 히고만의 독특한 상감이 창출되었다.

에도시대에는 「히고날뿔」 혹은 「히고금속공예」로서 높이 평가되어 히고상감의 황금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히고상감은 화려함과 아름다움보다는 검소함을 통해 미를 추구하려고 한데에 그 특징이 있다. 에도시대 무사들의 단디즘이 잘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명치(明治)9년 폐도령(廢刀令)에 의해 칼장식구의 수요는 격감했지만, 상감기술을 그대로 살려 담배갑이나 띠장식구등 장신구에의 활로가 계승되고 있다.



1. 무늬 새기기

끌을 사용해 빗살무늬를 새겨 넣는다.



2. 상감

소재에 순금과 순은을 박아 넣는다.



3. 녹 제거

녹액을 바른 소재를 불에 구워 빨강녹을 제거한다.



4. 광내기

순금과 순은만을 곱게 손질해 광을 낸다.



5. 마무리

음영을 살리기 위해 조각을 하고 마무리한다.



히고상감 광 조
주식회사 대주공예
구마모토시 신나베 3초메 10번지 48호
전화 096(386)8168 팩스 096(386)8235